

 국토교통부		보도자료		
		배포일시	2020. 6. 2.(화) 총 2매(본문 2)	
담당 부서	시설안전과	담 당 자	· 과장 김태곤, 사무관 이용재, 주무관 문성준 · ☎ (044) 201 - 4598, 4594	
보도일시		2020년 6월 3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2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국토부, 국가 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프라 총조사 사업 시행

-15종 기반시설의 현황조사 및 DB구축 본격 착수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관련 정보를 표준화하는 체계를 구축하고, 유지관리 정보를 집대성하는 ‘인프라 총조사 사업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사업으로 도로, 항만, 열수송관, 송유관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15종*의 국가 기반시설물을 더욱 체계적이고,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.

* (대상 기반시설 15종) 도로, 철도, 항만, 공항, 하천시설, 댐, 저수지 등 SOC 7종
수도, 하수도, 전기, 가스, 열공급, 통신, 송유, 공동구 등 지하시설물 8종

□ 이번 사업은 15종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제원, 유지관리·성능개선 이력, 예산투입 이력 등 관련 정보를 조사·분석하여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,

○ 그동안 기관별·시설물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정보들을 상호 연계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, 범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 및 계획 마련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도로·철도 등 SOC 뿐만 아니라, 가스·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며,
 -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연구, 철도연구, 농어촌연구 등 각 기반시설 분야별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, 그간 운영해 왔던 범부처 및 공동연구 협의체와도 적극 협업할 예정이다.
- 한편, ‘인프라 총조사 사업’은 총 4차년도(‘20~’23)에 걸쳐 추진되며, 1차년도(‘20.5~’21.3)에는 체계적인 조사를 위한 기반시설 분류체계 마련, 조사항목 도출 및 기반시설 기본현황 조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.
 - 또한, 향후 ‘21년 구축·운영 예정인 기반시설관리시스템과 상호 연계하여 국가 기반시설 성능 및 유지관리 비용 분석 등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·제공할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이다.
-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“그간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의 세부적인 정보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”라면서,
 - “체계적·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정보가 근간이 되므로 이번 인프라 총조사 사업이 내실 있는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이용재 사무관(☎ 044-201-459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